

현 불 뉴스

조계종 '스님 노후 연금제' 실시

월주총무원장 하반기 사업계획 40세이상 의료비 전액 지급

불교종합회관 98년 준공목표 승가대 김포학사 99년 문열어 분담금 30% 교구예산에 보조

내년부터 40세 이상의 스님들에게 재해나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종단에서 의료비전액을 부담하고 승가노후 연금제도가 실시된다. 또한 매달 불교종합회관(조계종 청사) 건립이 본격화 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8월27일 특별담화를 통해

로 40세 이상 종단소속 스님들의 재해 질병시 의료비제공 및 사고후 보장, 장애비지급과 노후연금지급 등을 위해 내년도 종단예산에 15억원을 책정할 계획이다.

숙원사업으로 펼쳐져 조계종 청사건립은 조계사부근 부지 매입이 끝남에 따라 하반기에 불교종합회관 건립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 내년도에 기본 실계를 마치고 98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승가대 이진불사는 9월중으로 김포 금정사부지 토목공사를 착공해 99년부터 신입생모집이 가능하도록 하겠

다고 밝혔다.

이밖에 교구에 산재 실시에 따라 중앙분담금의 30% 범위에서 각 교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승중직장을 위해 일부 종도들의 사치성 해외여행을 자제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월주스님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은 전 종도들의 염원이 담긴 숙원사업이다"며 원만한 화합을 위해 사부대중의 성원과 참여를 당부했다.

월주스님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은 전 종도들의 염원이 담긴 숙원사업이다"며 원만한 화합을 위해 사부대중의 성원과 참여를 당부했다.

창립법회는 9월 중순 조계사에서 봉행할 예정이다. 이날 모임에는 행정관급 이상 직원분 60명 가운데 40명이 참석했다.

청불회원으로 참여한 주요인사는 이각법 정경희회수석, 김성동 교무비서관, 박영환 공보비서관, 강상일 인사재무비서관, 김상봉 부속실의장비서관 등이다.

미얀마등 조사단 파견

세계가 질병 아등구제 기구인 이웃을 돕는 사람들(회장 송산스님)이 미얀마 스리랑카 등 동남아 불교국가와 가이 및 질병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9월 초 현지 조사단을 파견한다.

김동훈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한 현지조사단은 현지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빈민구호사업 교육사업 주민생활사업 등을 펼칠 계획이다.

조계종 강원학인 1329명

현재 조계종 승가대학(강원)에서 정진중인 스님은 비구 481명 비구니 848명 등 총 1329명으로 집계됐다.

조계종 교육원에 따르면 운사승가대학이 2백28명으로 가장 많고 1백명 이상 수험중인 강원은 해인사승가대학, 봉명사, 동학사 등이다.

전국 자원봉사 대축제

(사)대한불교청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는 오는 9월 7일부터 15일까지 전국에서 열리는 제3회 전국자원봉사대축제에 중앙일보, KBS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한교련은 전국 각 지부 지회 및 시설체 29개 단체가 참여해 사회복지, 의료, 환경, 교통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펼친다.

부산지도자 하계수련회

부산불교지도자 하계수련회가 지난 8월 24~25 양일간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 주최로 통도사포교원, 부산거사문화, 한마음선원 등 30여개 단체의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칠불사에서 열렸다.

레크리에이션 특강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회장 법현)는 오는 2~30일까지 종로 대각사에서 불교레크리에이션 특강을 개설한다. (02)738-3393

부산불교 중·고생연합회 '흠사랑봉사' 현장

"130여명 종교초월 합심 땀 흘리며 마음공부"

기쁘다"며 땀에 젖은 얼굴로 활짝 웃어보였다.

또 농가의 일손을 돕는 노작 외에 자기계조를 위한 수행에도 참여한 김효진(금정중 3)은 "이번 농활에서는 농촌을 돕는다는 기쁨 외에도 '묵인'과 '발우공양'을 통해 자신을 철저히 절제하는 법을 배웠고, 불교수행면에서 많은 점을 경험해 무척 유익한 시간을 보낸

부산물교 중·고생연합회 '흠사랑봉사' 현장

"130여명 종교초월 합심 땀 흘리며 마음공부"

것 같다"고 말했다.

개신교 천주교 불교초심자 등 종교를 초월해 '작은사람 큰기쁨'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한 남여학생들은 농사일이 처음이라 얼굴이 땀 범벅이 되고 옷이 흠투성이가 되었지만 다음에 또 오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강요와 친구의 권유에



▷표충사 일대에서 농촌봉사활동을 하고있는 청소년들.

의해서 따라왔던 진성군과 성경양은 농활의 보람과 기쁨에 찬 얼굴로 합심 일손을 늘렸다. 이번 농촌봉사활동은 생활 속의 포교를 이뤄냈다는 성과

전문직 종사자 연수 활성화

조계종 "사회 영향력 고려 불교이해도 높이자"

전문직종사자 대상의 각종 연수가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파)은 신문·방송사에서 근무하는 불자들을 대상으로 불교에 대한 소양을 증진시켜 불교를 바르게 홍보하도록 하기 위해 오는 12월 6~7일 방송언론인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자언론인 연수는 교계에서는 처음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50여명을 초청할 예정이다. 또 13회째 맞는 방송국가 초청세미나도 예전과는 달리 행사내용과 규모를 확대해 실시한다. 10월 4~5일, 송광사 예정.

포교원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전문직 종사자들의 불교이해를 높이기 위해 같은 연수기회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직장신행단체 지도자연수(9.21~22), 전국사찰 포교소임자 연수(10.15~17), 전국 신도회장단 연수, 파미타 지도자대회도 올 하반기중 실시기로 했다.

인도서 국제대법회 부불련·부산BBS 주관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와 부산불교방송은 공동으로 오는 10월21일 인도 뉴델리 특별법회장에서 달라이라마 초청 국제대법회를 봉행한다.

부불련과 부산불방은 불교도의 단합된 의지를 천명하고 양



▷불일법종에 양각된 민족의 성지 백두산 천지.

법률사 통일기원 '불일법종' 완성

13일 타종법회

승광사 서울본원 법률사(주지 현호)는 민족의 염원이며 통일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통일기원 불일법종을 조성하고 오는 13일 오전10시 타종법회를 개최한다.

청동 1천6백편의 불일법종은 한국불교전래 1600년 승광사의 16국사를 상징하며 불국경토 실현을 염원하고 있다.

한편 불일법종 조성을 기해 법률사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월탄스님(용화사 회주) 고산스님(쌍계사 조실) 월운스님(봉선사 회주)을 초청하여 특별기도 및 설법회를 개최한다.

용천사 '절앞 상가' 절대 반대

"환경훼손 불보듯"... 철회 서명운동 전개

천년고찰앞에 상가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사찰측과 심한 마찰을 빚고있다.

신라 문무왕 10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용천사(주지 성종·경북 청도군 각북면)는 지난 8월28일 통대호될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용천사 앞 상가건설을 반대하는 서명서를 발표했다.

이 서명서는 △행정당국은 용천사 앞 상가건설을 불허할 것 △상가건설 당사자는 계획을 즉각 취소할 것 등을 주장

하고 상업주의적 개발논리에 맞서 사찰환경권을 수호할 것을 천명했다.

또한 상가가 건설될 경우 고기반새가 법당에 흘러들어들어 물론 용천사의 지하수맥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용천사는 사찰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관계기관에 상가건설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다.

용천사는 대응전이 경북도지정 유형문화재 제295호로 지정되어 있다.

승려 분한신고 미필자 조사

조계종 호법부, 9월부터

조계종 호법부(부장 해담)는 지난 8월 27일 업무계획안을 통해 승려 분한신고미필자 현황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부터 97년 11월까지 3차에 걸쳐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90년 실시한 분한신고 미필자 3천명과 86년 이후 사건관련 승려 및 징계자 5백명을 대상으로 △호적변동사항 △교구별 거주현황과 △징계승려의 사찰거주 및 수행현황 △승려의 사실현여부 및 재산관계를 조사한다.

호법부는 또한 이번조사로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는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승려분한신고 미필자 자진 제적원신고기간으로 공고했다. 호법부는 자진제적원을 신고한 승려에게는 종단차원으로 환계처리를 미련할 계획이다.

호법부장 해담스님은 "종단적 배려로 자진신고기간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않고 종단을 사칭하여 승려 본분을 위해할 경우 전원징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마음 물질과 마음은 하나

목직과 마음은 둘이 아닙니다. 목직따윈 마음따윈 없고 생각하는데 목직세계는 마음의 너툼이 뿐입니다. 말하자면 목직이나 마음이나 다같이 목성의 나툼이 뿐이요 맞입니다. 고로 천백억 해산이라는 말이 이 맞입니다.

(한마음요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생활속의 불교 87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말을까 하노라

옛 시조에 이르게 있다.
'말하기 좋다고 남의 말 말을 것이 남의 말 내 하면 남도 내 말 하는 것이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말을까 하노라'

말이란 생각의 전달수단인 뜻의 표현이요 마음의 매개체이다. 그런데 이 시인은 '말 말을까 하노라' 말하고 있다. 바로 구업(口業)을 경계하고 있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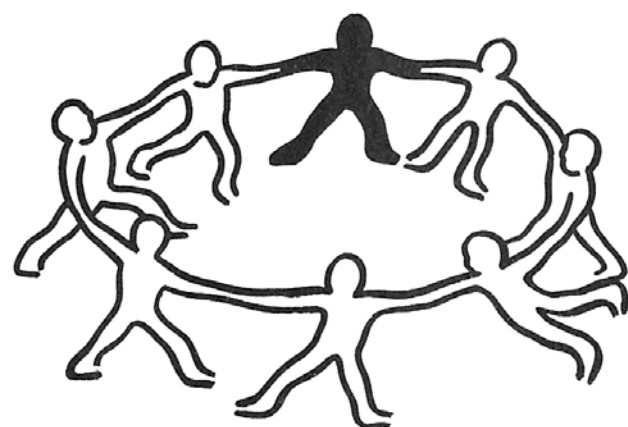
우리는 잠시도 쉬지않고 몸·입·뜻으로 입을 짓는다. 일거수 일투족이 다 입을 짓는 일이고 말 한마디 한마디로써 또 입을 쌓고 생각 생각을 써줄 줄로 삼아 업의 그물을 짓고 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늘 고달프고 어수선하고 불안하다. 뿌리고 거두고 다시 뿌리는 과정이 대체로 청정하지 못한 까닭이다. 시인은 그래서 말로 짓는 구업만이라도 덜어보겠다는 심회를 털어놓은 모양이다.

그러나 구업이 두렵다고 말을 앓고

살 수는 없다. 신·의업이 두렵다고 꿈쩍않거나 아무 생각없이 살 수도 없다. 실은 안하는 것도 업이기 때문에 짓고 받는 업의 그물 밖에서 홀로 머물 수는 없다. 무정물이 아닌한 그렇다.

고로 문제는 안하는데 잇는게 아니라 하되 합이 없이 하는 것, 머무는 마음이 없이 함으로써 절로 청정한 행이 되게 하는 데 있다. 무엇인가 애착을 두지 않은 말, 나를 앞세우지 않는 생각, 오로지 행동 그 자체가 목표인 행동, 적어도 그런 차원의 삼업이 소중한 것이다.

우리들이 일상에서 내뱉는 말이란 대체로 인쇄공의 활자 틀 같은 한계를 갖는다. 말하자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의 상자 속에서 그때그때 골라낸 생각들을 밖으로 표현해 내는게 말이다. 고로 말은 생각의 상자를 벗어난 범위는 표현할 줄도 모르고 표현할 수도 없다. 마음공부가 언어도단 불립문자-말로써 미치지 못하는 말이 끊어진 자리요



문자로 드러낼 수 없는 경지를 강조하는 까닭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신의 생각 상자를 참으로 애지중지한다. 좁게도 그 상자 밖의 세상을 인정하지 않으려하고 심지어는 상대의 생각·치까지도 내 상자 속에 집어넣으려한다.

말이 말을 낳고 말로써 말이 많아지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사인의 말처럼 '남의 말 내하면 남도 내말 할 것이니 말 말을까 하노라'를 깊이 새겨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말 다툼은 이익 다툼이 되고 심하면 아귀 다툼이 될테니까.

말 한번 잘못하고 행 한번 잘못하면 그 누(累)가 내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역대 조사들한테도 미치고 석가모니 부처님에게도 미친다. 왜냐? 그것은 참으로 광대무변한 마음도리를 더럽히고, 위없는 가르침에 먹칠을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불교의 계율중에 말과 관련된 금계(禁戒)가 많은 까닭도 그것이다.

진실이 담기지 않은 말은 비록 걸치레가 그럴싸 멋지더라도 복은 셋과 같아서 아무런 공덕이 없다. 더욱이 자신의 이익, 생각이나 이념, 명예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날을 세운 말이라면 그런 말은 상대를 죽일뿐 아니라 나를 죽이고 앞서 산 사람, 뒤에 오는 사람을 다 죽인다. 고로 말을 해야할 경우라면 그 말은 진실한 말, 따뜻한 말이야 한다.

예불 첫 머리에서 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을 읽다. 이제부터는 진실한 말만을 하겠다는 준비이자 다짐이다.

정구업진언이야말로 매일매일 우리가 첫 입을 때는 순간의 말이 되어야 한다. '말 말을까' 하지 말고 진실한 말을 다짐하자.

협찬: 주 인 공